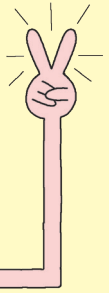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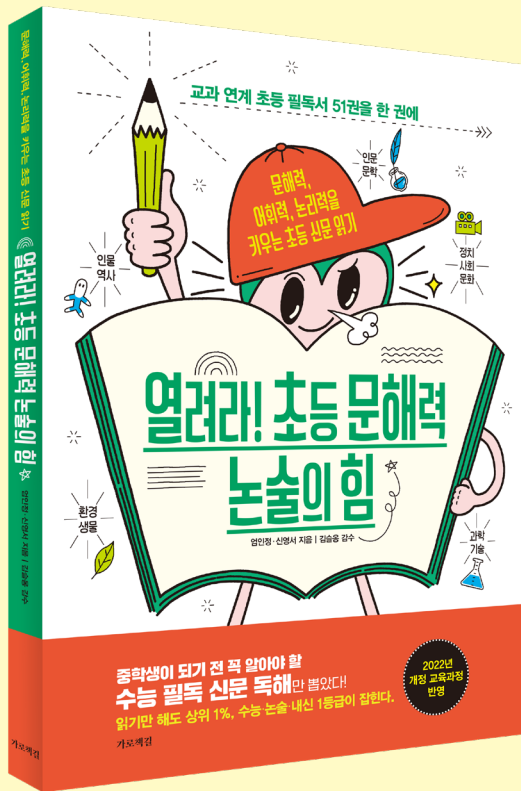




# 1% 국어 영재의 선택★



“초등 논술·내신 만점왕이 되고 싶으면  
이 책으로 꼭 시작하세요!”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 연계 필독서 51권과  
51개의 뉴스 주제를  
엄선하여 선정



## 감수 및 추천

### 『세종국어문화원』 김슬옹 원장의 꼼꼼한 감수

아이들 눈높이에서 사형제도, 난민, 인공지능, 기후 위기, 역사 인물과 민주화 운동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며 찬반 토론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우는 문제를 통해 읽고 쓰며 문해력의 근육을 기르게 될 것이다.

\*\*\*\*\*

### 베스트셀러 『중등필독신문』의 이현옥 저자 추천

『열려라! 초등 문해력 논술의 힘』은 교과 개념, 토론 주제, 역사 인물, 최신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까지 담아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읽기만 해도 수능·논술·내신에 도움 되고 문해력·어휘력·논리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초등 필독서다.

열려라! 초등 문해력 논술의 힘-정답 및 해설



## 열려라! 초등 문해력 논술의 힘

### 토론과 토의는 어떻게 다를까?(본책 22-23쪽)



- 1 ①-○, ②-○, ③-x(찬반론이 나뉘는 주제이므로 토론 주제로 적합하다.)
- 2 토론이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질 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토의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의논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 3 •토론 주제: 초등학교생이 학원에 꼭 다녀야 할까?  
•토의 주제: 전학 가는 우리 반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 4 ①-㉠, ②-㉠, ③-㉡, ④-㉡, ⑤-㉢
- 5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지키는 중요한 덕목이다. 첫째, 부모님은 생명을 주고 성장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신 존재이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도리이다. 둘째, 효도는 가족 내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셋째,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가치의 실천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인다. 결국 효도는 개인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이다.
- 6 **찬성 주장:**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반드시 씌워야 한다.  
**근거:** 입마개는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특히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있는 개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입마개가 필요하다. 이는 반려견 보호자에게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줄여주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한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반대 주장:**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반드시 씌울 필요는 없다.  
**근거:** 모든 개가 공격적이지 않으며, 지나친 규제는 반려견의 자유와 복지를 침해할 수 있다. 입마개는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호흡이나 사회적 교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작은 견종이나 온순한 개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황과 개의 성향에 따라 보호자가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본책 26-27쪽)



- 1 ② | 외국어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 2 외래어와 외국어는 구분 기준이 다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 속에 정착해 국어사전에 실린 말로, 대체할 순수 우리말이 없어 그대로 쓰인다. 예를 들어 버스, 커피, 텔레비전 등이 있다. 반면 외국어는 아직 우리말로 굳어지지 않아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는 말로,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어 임팩트(→ 충격), 머니(→ 돈), 굿모닝(→ 좋은 아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래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외국어는 공식적으로 우리말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외래어는 우리말이 된 외국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해도 되지만, 외국어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언어이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우리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4** •유입: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유입되면서 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남용: 치료를 목적으로 쓰이는 약물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본질: 사물의 겉모습보다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5** 우리말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유어와 한자어가 어우러져 풍성한 표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외래어와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국어의 아름다움이 점차 빛을 잃고 있다. 물론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래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며, 순화된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후대에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6 찬성 주장:**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거:**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은 국어의 정체성과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세대 간 의사소통에 혼란을 준다. 예컨대 ‘임팩트’ 대신 ‘충격’, ‘콘셉트’ 대신 ‘개념’을 쓰면 더 명확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국어를 보존하고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 주장:**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사용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 현대 사회는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 외래어가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이미 ‘버스, 커피, 인터넷’처럼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말은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렵고, 억지로 줄이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 언어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므로 외래어는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관용어와 속담은 어떻게 다를까?(본책 30-31쪽)



**1** ③ | 관용어가 아닌 속담이 비교적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2** 관용어와 속담은 모두 일상에서 자주 쓰이며 교훈이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관용어가 특정 상황에서 굳어진 표현으로 본래 뜻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반면, 속담은 옛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교훈적 의미를 전하는 짧은 문장이라는 점이다.

**3** 대화를 할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압축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은 완곡한 표현이므로 듣는 이의 감정을 좀 더 배려할 수 있으며, 재미있고 신선한 표현이므로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4**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언어에서 시작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이 곱고 따뜻해야 상대도 좋은 말로 되돌려 준다. 또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표현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고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는 신뢰를 쌓는다. 결국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고운 말을 쓰고 겸손함을 지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6 찬성 주장:** 관용어와 속담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언어 표현 방식이다.

**근거:** 관용어와 속담은 짧고 함축적인 말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며, 인간관계에서 교훈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진다. 예컨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같은 속담은 오늘날에도 대화의 태도를 가르치고, “발 벗고 나서다” 같은 관용어는 적극적인 행동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언어는 세대를 넘어 이해와 소통을 돕는 중요한 도구다.

**반대 주장:** 관용어와 속담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언어 표현 방식이 아니다.

**근거:** 현대 사회는 빠른 정보 전달과 직설적인 표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용어와 속담의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은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속담이나 관용어보다 직관적인 외래어·신조어를 선호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간결한 문장과 직접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관용어와 속담은 점차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 홍길동은 과연 의적이자 영웅일까? (본책 34-35쪽)



- 1** ④ | 홍길동은 병조 판서에 임명되나 임금님이 벼슬을 내리자마자 조선을 떠나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
- 2** 홍길동이 살던 조선시대는 신분 질서가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홍길동은 재능이 뛰어났지만 천한 신분인 서얼로 태어난 탓에 출세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아버지 홍 판서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 또한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고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탐관오리를 벌하기로 결심하였다.
- 3** 활빈당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의로운 도적 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4** •적서 차별: 옛날에는 혼인은 물론 교유에도 적서 차별이 있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호부호형: 이를 애련하게 여긴 아버지가 전격적으로 호부호형을 허락한다.
- 5** 『홍길동전』은 조선 광해군 때에 지어진 최초의 한글 소설이자 ‘적서 차별의 사회 제도’와 ‘부패한 정치’를 비판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6 찬성 주장:** 홍길동은 단순한 도둑이 아닌 의적이자 영웅이다.

**근거:** 홍길동이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는 기준은 그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착취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함경감사가 백성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백성들이 더는 견디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자 홍길동은 함경감사의 재물을 다시 빼앗았다. 또한 홍길동은 활빈당이라는 도적 무리에 참여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백성의 재물은 조금도 빼앗지 않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에도 손대지 않았으며, 수령들이 억지로 빼앗은 백성들의 재물만을 탈취하였다. 그렇게 탐관오리들로부터 빼앗은 재물로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



제하였기 때문에 홍길동은 의적이자 영웅이라 볼 수 있다.

**반대 주장:** 홍길동은 불완전한 의적이자 영웅이다.

**근거:** 홍길동은 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비범한 능력을 지녔고, 병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받았기 때문에 '적서 차별 철폐, 부패한 탐관오리의 처벌 강화' 등 자신의 능력으로 조선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홍길동이 진정한 의적이자 영웅이라면,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조선에 남아 병조 판서로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홍길동은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자 활빈당 활동을 멈추었고,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조선을 떠나 울도국이라는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며 자신의 야망을 펼쳤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완전하지 못한 의적이자 영웅이다.

## 비극 속에서도 살아 있는 인간의 강인함, 『몽실 언니』(본책 38-39쪽)

1 ①-○ ②-○ ③-○

2 몽실이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였으며 부모님마저 일찍 여윈 불우한 처지이다. 또한 새아버지의 폭력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 난남이, 아버지가 다른 동생 영득, 영순이까지 사랑으로 보살핀다. 힘겨운 삶을 이어가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강인하고 따뜻한 소녀이다.

3 이 작품의 주인공 몽실이의 고단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한 시대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불우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강인한 의지로 시련과 맞서며 곳곳하게 살아가는 소녀 몽실이를 통해 희망을 엿볼 수 있다.

4 ①-㉠, ②-㉡, ③-㉢, ④-㉣, ⑤-㉤

5 권정생(1937~2007) 선생님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경북 안동에서 마을 교회 종지기로 일하면서 『몽실 언니』를 썼다. 유명 작가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지낸 것은 물론, 세상을 떠나면서 인세를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단편동화 『강아지똥』으로 기독교 아동 문학상을 받았고, 『무명 저고리와 엄마』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사과나무 발 달님』, 『바닷가 아이들』, 『점득이네』 등의 어린이 책과, 소설 『한티재 하늘』,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을 출간하였다.

6 **찬성 주장:**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근거:** 가족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며,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몽실이처럼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는 선택은 책임과 헌신을 보여주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결국 개인의 자유보다 가족의 생존과 행복을 우선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반대 주장:**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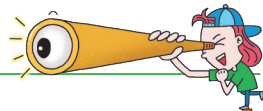
**근거:** 개인의 꿈과 자유는 삶의 본질적 가치이며, 이를 포기하면 자기 존재를 잃고 결국 가족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몽실이처럼 희생만을 강요받는 삶은 불평등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가족의 행복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꿈을 존중받을 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자유와 꿈을





지켜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지만 소중한 연대, 『긴긴밤』(본책 42-43쪽)



- 1 ①-×(노든은 '흰바위코뿔소'이다.), ②-○, ③-○
- 2 노든은 코뿔소이지만 어린 시절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 바깥세상으로 나섰다.
- 3 노든은 바깥세상에서 자신과 같은 코뿔소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밀렵 사냥꾼에게 아내와 딸을 잃고 동물원으로 보내진다. 동물원에서 만난 또 다른 코뿔소 양가부와 함께 동물원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지만 양가부 역시 사냥꾼에게 목숨을 잃는다. 인간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은 노든은 그들을 증오하며 복수심을 품는다.
- 4 •여정: 1박 2일의 짧은 여정을 마친다.  
•안락하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이다.  
•연대: 학생들은 재야 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5 인간의 손에 가족과 친구들이 죽고, 인간에 의해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바깥세상으로 나와 힘겨운 여정을 떠난다. '긴긴밤'은 언제 또 인간의 습격이 있을지 모르기에 한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는 동물들에게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는 밤,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물들의 험난한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작품에 '긴긴밤을 지나 살 아남았고, 긴긴밤 덕분에 화를 가라앉혔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긴긴밤은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찬성 주장:** 노든이 인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품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근거:** 노든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고통을 겪었다.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동이 그의 삶을 파괴했으므로, 그가 증오와 복수심을 품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정당한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반대 주장:** 노든이 인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근거:** 증오와 복수심은 결국 또 다른 폭력과 파괴를 낳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을 향한 증오와 복수는 무차별적이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 뿐이다. 오히려 대화와 이해, 화해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복수심은 노든 자신에게도 끝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따라서 증오와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악동 제제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본책 46-47쪽)



- 1 ③ | 제제는 원래 뽀르뚜가를 싫어했지만 제제가 다리를 다쳐 뽀르뚜가의 도움을 받고, 아빠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뒤 큰 상처를 받은 제제를 뿌르뚜가가 따뜻하게 감싸준 이후로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 2 장난이 심해 학대받으며 자라는 다섯 살 소년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를 친구 삼아 대화하고, 자신을 보듬어 주는 친구 뿌르뚜가 아저씨를 만나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기 때문이다.
- 3 제제는 장난기가 심해 빨래가 널려 있는 빨랫줄을 끊기도 하고, 옆집 과일나무에서 몰래 과일을 따먹기도 했다. 또한 스타킹을 뱀처럼 만들어 길가에 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온갖 심한 장난을 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제제를 작은 악마라 불렀다.
- 4 작은 새는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이 생기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새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보내 하느님이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새를 넣어 주시도록 해야 한다. 제제가 마음속 작은 새를 날려 보낸 것은 제제에게 생각이 생겼다는 의미로, 이는 곧 제제가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 5 제제는 어린 시절에는 장난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며 점차 삶의 아픔과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배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성찰이 자리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제는 단순히 철없는 아이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결국 제제의 성장은 고통을 통한 깨달음,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책임감의 자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6 **찬성 주장:** 제제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거:** 상상 속 친구와의 대화는 아이가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와 나누는 대화는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며,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아이가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반대 주장:** 제제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상 속 친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사람과의 교류보다 상상 속 존재와의 대화에 몰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상 속 친구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 악동 제제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본책 46-47쪽)



- 1 ③ | 제제는 원래 뿌르뚜가를 싫어했지만 제제가 다리를 다쳐 뿌르뚜가의 도움을 받고, 아빠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뒤 큰 상처를 받은 제제를 뿌르뚜가가 따뜻하게 감싸준 이후로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 2 장난이 심해 학대받으며 자라는 다섯 살 소년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를 친구 삼아 대화하고, 자신을 보듬어 주는 친구 뿌르뚜가 아저씨를 만나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기 때문이다.
- 3 제제는 장난기가 심해 빨래가 널려 있는 빨랫줄을 꿸기도 하고, 옆집 과일나무에서 몰래 과일을 따먹기도 했다. 또한 스타킹을 뱀처럼 만들어 길가에 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온갖 심한 장난을 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제제를 작은 악마라 불렀다.
- 4 작은 새는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이 생기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새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보내 하느님이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새를 넣어 주시도록 해야 한다. 제제가 마음속 작은 새를 날려 보낸 것은 제제에게 생각이 생겼다는 의미로, 이는 곧 제제가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 5 제제는 어린 시절에는 장난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며 점차 삶의 아픔과 책임을 깨닫게 된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배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성찰이 자리 잡는다. 그 과정에서 제제는 단순히 철없는 아이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인물로 성장한다. 결국 제제의 성장은 고통을 통한 깨달음,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책임감의 자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6 **찬성 주장:** 제제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거:** 상상 속 친구와의 대화는 아이가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통로가 된다.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와 나누는 대화는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며,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아이가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반대 주장:** 제제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상 속 친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사람과의 교류보다 상상 속 존재와의 대화에 몰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상 속 친구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 우리 마음속 영원한 어린 아이, 『모모』(본책 50-51쪽)



- 1 ② | 모모의 재능은 어떠한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잘 들어주는 것이다.
- 2 모모가 살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간다. 그들의 계락을 알아차린 모모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해 호라 박사의 거북 카시오페이아와 함께 모험을 시작한다.
- 3 모모에게는 어떠한 충고나 조언도, 위로도 없이 그저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





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담아 귀 기울여주는 경청의 재능이 있다.

**4** •소소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

•고전: 고전은 교양인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

•경청: 그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사람들은 경청을 안 하는 듯했다.

**5** 친구가 학원에 가지 않아서 엄마한테 혼이 나 속상해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잘못된 일이니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준 뒤 편의점에 가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내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급한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6 찬성 주장:** 『모모』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근거:** 작품 속에서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가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과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인간을 상징한다. 모모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는 과정은 여유와 인간적 교류의 가치를 일깨우며, 이는 현대인의 삶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성찰하게 만든다. 따라서 『모모』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작품이다.

**반대 주장:** 『모모』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거:** 작품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요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 때문에 독자들이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시간 도둑’이라는 은유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의 다양한 원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모』는 비판적 의도를 담고 있으나 실제 현대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본책 56-57쪽)



**1** ①-○, ②-○, ③-×(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특권층인 시민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여성, 노예,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였다.), ④-○

**2**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 이념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선거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사회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으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민주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제 정치 운영에 적용한 체제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대의 민주제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한다. 민주 정치는 국민 참여와 견제를 통해 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한다.

**3** 민주주의 정신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인식 아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참여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4** •자치회: 자치회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회장단 안에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의회: 그는 사리사욕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엄성: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5** 가정에서 집안일을 분담하기 위한 가족회의, 학교에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학급회의 등이 있다.

**6 찬성 주장:**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거:**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선거, 토론, 집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킨다.

**반대 주장:**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근거:**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구조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오히려 비전문적 판단과 감정적 갈등이 늘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 행사와 감시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정치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과 제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 공정무역이란 무엇일까?(본책 60-61쪽)

**1** ①-○, ②-○, ③-×(카카오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2**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에게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3** 공정무역 제품에는 커피, 코코아, 쌀, 과일, 차, 설탕 등의 식료품과 의류, 수공예품, 침구류, 목재, 인형 등이 있다.

**4** •흑독하다: 그는 한겨울에 산에 올라 흑독한 추위로 고생했다.

•책무성: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무성이 포함되어 있다.

•관행: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고쳐야 한다.

**5**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빈곤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면 생산자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6 찬성 주장:** 공정무역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한다.

**근거:** 공정무역은 생산자가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또한 공정무역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및 생산 방식을 추구한다. 이렇듯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한다.

**반대 주장:** 공정무역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근거:** 공정무역은 제품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공정무역 제품



은 공정한 생산 조건 및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제품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공정무역은 특정 제품이나 지역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듯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며, 제도적 한계가 있다.

##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본책 64-65쪽)



- 1 ⑤ |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 2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이 촉법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3 보호처분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단기 및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을 말한다.
- 4 ①-㉔, ②-㉔, ③-㉔, ④-㉔, ⑤-㉔
- 5 예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조숙한 경우가 많고,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나 폭력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범죄가 될 수 있다.
- 6 **찬성 주장:**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근거:**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반대 주장:**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거:** 어릴 땐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범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전과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소년범은 처벌보다 교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소년범들을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정당방위, 필요할까?(본책 68-69쪽)



- 1 ②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방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2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취하는 가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3** 정당방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 권리 등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당방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정당방위를 무분별하게 남용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려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 4** •재고: 그 의견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용: 약의 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악순환: 고임금과 고물가의 악순환은 단절되어야 한다.

- 5** 정당방위를 잘못 사용하면 과잉 방어나 불필요한 폭력으로 이어져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당방위는 위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경우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정확히 배우고,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법 교육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정당방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찬성 주장:** 정당방위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근거:** 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방위라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당방위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반대 주장:** 정당방위는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근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기 방어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어 행위가 공격성을 띠는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 신뢰도를 훼손한다. 이는 결국 방어와 공격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폭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형제도, 폐지해야 할까?(본책 72-73쪽)



- 1** ①-x(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30년 가까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②-○, ③-○
- 2**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3** 사형 제도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사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흉악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



4 ①-㉠, ②-㉡, ③-㉢, ④-㉣, ⑤-㉤

5 사형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이유는 가치관과 사회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찬성하는 입장은 극악한 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범죄 억제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또한 사형이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종신형 같은 대체 형벌의 가능성도 의견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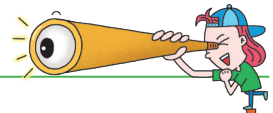
6 **찬성 주장:** 사형 제도는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근거:** 사형 제도는 범죄자들에게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목숨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또한 사형 제도를 실시해도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보다는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주장:**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근거:**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 때문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이지 흉악범의 인권이 아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 제도마저 폐지된다면, 범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본책 76-77쪽)



1 ①-○, ②-×(현행법상 한국에서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③-○

2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죽음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행위인 반면, 존엄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 소극적 행위이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존엄사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4 •존엄성: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경시: 한때 우리의 전통문화가 경시된 적이 있었다.

•풍조: 사회 전반의 사치 풍조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5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즉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방식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이다. 존엄사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



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 찬성 주장:** 회복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 생명 연장은 무의미하다.

**근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 의료 기기에 의지한 채 삶을 연명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며,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극심한 고통만 남은 상황에서 더는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

**반대 주장:**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근거:**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단축할 수 없다. 만약 안락사가 허용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나아가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을 반대한다.

## 노키즈존, 과연 필요할까? (본책 80-81쪽)



**1** ①-×(명확히 정해진 연령은 없으나 주로 영유아 및 초등학교생이 노키즈존의 대상이다.), ②-○, ③-○

**2** 노키즈존이란 식당이나 카페 등 주로 음식점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3 찬성 측 입장의 근거:**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안전사고,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 자유와 다른 손님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반대 측 입장의 근거:** 노키즈존은 아이와 부모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제도로 비판받는다. 아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특정 공간에서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사회적 경험을 제한하고 가족 단위의 외출을 어렵게 만들어 공동체적 포용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4** ①-㉔, ②-㉔, ③-㉔, ④-㉔

**5** 노키즈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는 차별적 배제 대신 아동 친화적 공간과 성인 전용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돌봄과 시민의 상호 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찬성 주장:** 점주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노키즈존은 필요하다.

**근거:** 최근에 한 대형 베이커리에서 아이가 진열된 빵을 혀로 핥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위생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장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매장 고객과 점주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노키즈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주장:** 아이들의 자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근거:**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 모든 아





이들이 말썽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보호 아래 함께한다면 아이들의 자유도 존중 받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본책 84-85쪽)



- 1 ② I '장애인의 날'은 1991년 4월 20일에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 2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를 지닌다.
- 3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일상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긍정적이고 다양하게 묘사하여 고정관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확대해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4 장애인 차별은 개인에게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교육·고용 기회 박탈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회적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약화되고, 인적 자원의 활용이 제한되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며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상호 존중과 배려이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자세로, 차별과 편견을 줄이며 협력과 포용을 가능하게 한다.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 6 **찬성 주장:**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근거:** 장애인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올바른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 주장:**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근거:**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집값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필요할까?(본책 88-89쪽)



- 1 ①-×(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 2 노인 무임승차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3**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경제적 취약 계층인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문화·여가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①-㉠, ②-㉢, ③-㉠, ④-㉡

- 5** 노인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통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등 지원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만 무임승차를 허용해 혼잡을 완화하거나, 장거리·고속 교통수단은 할인 제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교통 복지 기금을 마련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방식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6 찬성 주장:**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복지 제도이다.

**근거:**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훗날 내가 받을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 주장:**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일반 승객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근거:**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운영 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맡을 수 있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무임승차 승객들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족한 제도이다.

## 임산부 배려석,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할까?(본책 92-93쪽)



- 1** ①-○, ②-×(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③-○

- 2** 임신한 여성 대부분이 지하철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는 임산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배가 눈에 띄지 않는 초기 임산부는 눈치를 보게 되고, 이미 다른 승객이 앉아 있는 경우 자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배려는 선택'이라는 인식은 임산부석을 권리가 아닌 호의로 만들며, 이로 인해 많은 임산부가 신체적 불편보다 정서적 부담을 느끼며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 3**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져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체형이나 옷차림에 따라 잘못 인식될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감한 신체 정보를 감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설치와 유지 비용이 커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4** ①-㉠, ②-㉡, ③-㉢, ④-㉠



**5** 몸이 무거운 임신부들이 자유롭게 임신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고, 겹으로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신부도 보다 편하게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6 찬성 주장:** 임신부 배려석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근거:** 임신부 배려석에 일반 승객이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반 승객의 관점에서는 비어 있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임신부가 오면 자리를 비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형상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초기 임신부들도 있고, 초기 임신부가 좌석에 앉고 싶어도 양보를 요구하기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의 효율성보다는 임신부 배려석 취지 그대로 항상 비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반대 주장:** 임신부 배려석을 항상 비워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근거:** 출퇴근길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임신부 배려석이라는 이유로 좌석을 늘 비워 두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빈 좌석이 있다면 누구라도 앉을 수 있도록 하되 임신부를 보면 양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될까?(본책 96-97쪽)



**1** ①-○, ②-○

**2**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위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으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 배려와 보호의 목적을 가진 거짓말을 의미한다.

**3** 선의의 거짓말에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다. 반면에 선의의 거짓말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거짓말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면 윤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4** ①-㉔, ②-㉕, ③-㉖, ④-㉗

**5** 학교에서 친구와 부딪쳐 무릎에 상처가 났었는데 절뚝거리는 내 모습을 보신 엄마가 어디 다쳤냐고 물으셨다. 나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몰래 반창고를 붙였다. 나중에 엄마가 무릎에 난 상처를 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속상해하셨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고 바로 상처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다.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고, 만약 다쳤을 땐 바로 엄마한테 말씀드려 나중에 더 속상하시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6 찬성 주장:** 선의의 거짓말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근거:** 진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진실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나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거짓일지라도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인 관계를 이어가야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반대 주장:** 선의의 거짓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근거:** 선의의 거짓말은 대부분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쉽게 허용되면, 윤리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며, 나아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해야 할까? (본책 100-101쪽)



1 ①-○, ②-○, ③-○

2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최근 자격이 없는 자의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료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고,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면 의료진이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는 데 부담이 되어 의료진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4 ①-㉠, ②-㉡, ③-㉢, ④-㉣

5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의료진의 책임성을 높여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6 **찬성 주장:**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근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리 수술,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의료 사고 시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장면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술 과정 기록물은 후에 의료진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반대 주장:**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근거:**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 행위이다. 그런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진은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녹화된다는 부담을 느껴 진료 시 위축될 수 있고,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 난민, 수용해야 할까? (본책 104-105쪽)



1 ①-○, ②-○

2 인권 침해, 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3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 활동과 테러 등 사회 불안과 국가 안보의 우려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4 ①-㉠ ②-천재지변 ③-㉢ ④-㉣

5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 치안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돕는 이유는 인도적 책임과 국제적 연대의 가치 때문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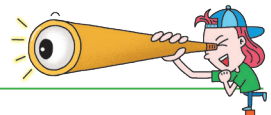
**6 찬성 주장:** 난민을 수용하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근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난민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 주장:** 난민을 수용하면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한다.

**근거:**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난민을 수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고, 범죄나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문화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할까?(본책 108-109쪽)



**1** ①-○, ②-○, ③-○

**2** 아침형 인간이란 이른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저녁형 인간이란 아침형 인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늦게 일어나 오후나 밤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져 아침에 일을 하면 적은 시간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녁형 인간은 늦은 저녁이나 밤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4** •일과: 광풍이 일과 후 잠잠해졌다.

•자기계발: 평소에 자기 계발을 계속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다.

•독창적: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지.

**5**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정주영은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으며, 아침 시간을 활용해 업무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했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러한 습관은 그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과 탁월한 리더십의 기반이 되었다.

**6 찬성 주장:** 아침형 인간은 장점이 많다.

**근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출근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과 아침 식사를 하고, 독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잠들어야 하기 때문에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야식의 유혹도 떨쳐낼 수 있다.

**반대 주장:** 아침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더 효율적인 사람도 있다.

**근거:** 저녁형 인간은 창의적이고 영리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질은 충분한 아침잠이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약 저녁형 인간에게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압박한다면, 그는 생활 리듬이 무너져 스트레스로 인



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모두 악화될 것이다. 이렇듯 사람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 리듬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일이나 학업 능률이 오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모두가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다.

## 성형 수술, 필요할까?(본책 112-113쪽)



- 1 ①-○, ②-○, ③-×(논란이 되고 있는 성형 수술은 미용 성형이다.), ④-○
- 2 성형 수술은 신체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수정하여 외모를 개선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 과정이다.
- 3 성형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의학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외상이나 선천적 기형을 교정해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줄여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직업 활동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원활한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 4 - 자부하다: 형은 자기의 농구 실력을 자부하고 있었다.  
- 경쟁력: 기술 집약적 제품 개발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다.  
- 원만하다: 그는 성격이 활발해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 5 성형 수술의 보편화는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개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줄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는 외모 중심적 가치관이 강화되어 내면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나 외모 경쟁 심화로 사회적 불평등과 관계의 피상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결국 성형 수술의 보편화는 자신감과 기회의 확대라는 장점과 외모 지상주의 심화라는 단점을 함께 지니게 된다.
- 6 **찬성 주장:** 성형 수술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근거:** 불만족스러운 외모에 대한 우울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성형 수술로 인해 외모에 만족감을 얻게 된다면 우울증도 완화되고,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활력이 생기므로 원만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성형 수술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 주장:** 성형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  
**근거:** 성형 수술이 외모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 성형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술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수술을 했던 곳도 여러 번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성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듭된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꼭 필요할까?(본책 116-117쪽)



- 1 ①-×(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은 전통 시장의 매출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②-○





**2** 전통 시장이나 주변 골목 등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매달 이들을 휴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3 찬성 입장:**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형 마트의 독점적 판매 구조를 완화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권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해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와 상생을 촉진해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대 입장:**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제한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정책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형 마트의 매출 감소와 관련 산업 위축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폐업:** 몇 달째 적자가 나자 삼촌은 폐업을 선언하고 가게를 팔아 버렸다.

·자영업자: 채소 가격이 연일 폭등하자 자영업자인 아버지의 근심이 날로 깊어져만 갔다.

·소상공인: 고객 관리는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더욱더 중요하다.

**5**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휴업일에 평균 610만 원으로, 영업일 630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제 편의성 개선, 위생 관리, 문화적 요소 결합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찬성 주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은 필요하다.

**근거:** 자영업자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여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진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형 마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 시작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제도라고 생각한다.

**반대 주장:** 대형 마트를 휴업하기보다는 전통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는 냉난방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으며 물품 또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또한 매장 관리도 철저하여 위생적이며 카드 결제나 포인트 적립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전통시장에 비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그러므로 대형 마트 휴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전통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주차장, 위생, 결제 시스템 문제 등 전통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키오스크 설치, 확대해야 할까?(본책 120-121쪽)



**1** ①-○, ②-×(비대면 시스템이므로 감정적 갈등이 줄어든다.), ③-○



- 2 키오스크란 공공장소나 매장에서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독립형 전자 단말기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주문, 결제, 정보 제공, 티켓 발권, 체크인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이다.
- 3 키오스크는 매장 운영자에게 인건비 절감과 주문 효율성 향상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주문·결제를 처리해 직원 수를 줄일 수 있고, 주문 오류가 감소하며 회전율이 높아진다. 그 결과 매장은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되고, 직원은 핵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운영 효율과 고객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4 키오스크 확대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고객 편의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사회 전반에 항상 긍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소외될 수 있고, 인간적 교류가 줄어들며 서비스의 따뜻함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함께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 5 키오스크 이용 시 사회적 약자들은 복잡한 화면 구성, 작은 글씨, 느린 조작 속도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 특히 고령층이나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안내, 글씨 확대, 간단한 메뉴 구성, 보조 인력 배치 등 배리어프리 설계가 필요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기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찬성 주장:** 키오스크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근거:** 키오스크는 고객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여 주문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빠르게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편리하고, 업주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키오스크는 모두에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반대 주장:** 키오스크는 조건부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키오스크가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과 같은 특수 시설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키오스크 설치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지 말고 조건부로 도입해야 하며,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을 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원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교복 착용, 필요할까?(본책 124-125쪽)



- 1 ①-○, ②-○, ③-○
- 2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옷을 입음으로써 평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학교의 규율을 익히고 따르면서 또래들과 같은 학교라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교복 착용의 장점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형성해 학교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아침마다 옷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개성을 표현하기 어렵고, 계절이나



체형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교복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4 ①-㉔, ②-㉔, ③-㉔, ④-㉔

5 청소년기의 교복 착용은 긍정적으로는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안정감을 주지만, 부정적으로는 개성과 자아정체감 표현을 제한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복은 통일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 탐색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찬성 주장: 자율복 착용은 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근거: 청소년기는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 브랜드로 친구들에게 차별을 받는다면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져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가의 브랜드 옷을 구매하려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반대 주장: 교복 착용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근거: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복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복은 꽤 비싼 편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교복을 여러 벌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평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활동성 좋은 적당한 가격의 자율복을 착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고교학점제, 시행해야 할까요? (본책 128-129쪽)



1 ①-○, ②-○

2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제도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3 고교학점제 찬성 입장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 입장은 학교별 교사·시설 격차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나 학습 부담 증가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4 고교학점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학교별 교사 수급과 시설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인기 과목은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학생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교 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간 교사와 시설 격차를 줄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진로 상담과 학습 설계를 지원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 학



생들이 적성과 목표에 맞는 과목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방식과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개선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6 찬성 주장:**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을 더욱 성장시킨다.

**근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을 구성하고, 시험 준비와 과제 관련 일정 등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 조정하면서 메타인지(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 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반대 주장:** 고교학점제로는 수능을 대비하기 힘들다.

**근거:** 모든 공부는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이 보다 쉽고 흥미 있는 과목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과목의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독해력, 수리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능 대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보다는 대학 입시 제도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학업 제도가 필요하다.

## 청소년 이성 교제, 허용해야 할까?(본책 132-133쪽)



**1** ①-○, ②-○, ③-○

**2** 오늘날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방화와 디지털 환경의 확산 때문이다. 과거보다 연애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워졌고,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 소통 도구가 발달해 또래 간 교류가 활발해졌다. 또한 개인의 자아 표현과 독립성이 중시되면서 교제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3**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정서적 지지와 공감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자아정체감 탐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학업에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감정적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고,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4** ①-㉔, ②-㉔, ③-㉔, ④-㉔

**5**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 학교는 올바른 성·인권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가정은 열린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바람직한 지도 방법은 교제를 금지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6 찬성 주장:**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를 통해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거:**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긴장과 설렘을 주지만, 자존감을 높여주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므로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성 교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 주장:**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거:**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지만, 학업과 진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절



제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이성 교제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감정 소모가 커져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학업 성취도와 진로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자랑스러운 한국, K-문화의 한류 열풍(본책 136-137쪽)



1 ①-○, ②-○, ③-○

2 한류를 이끄는 한국의 문화에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가 중심에 있다. BTS,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은 세계적 인기를 얻고, 드라마와 영화는 독창적 스토리와 감각적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식, 패션, 뷰티 문화가 함께 확산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이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 한국 문화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맞춘 다국어 서비스와 문화 교류 확대,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혁신을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①-㉠, ②-㉡, ③-㉢, ④-㉣

5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한국을 창의적이고 세련된 문화 강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한국의 현대적 이미지와 매력을 높였고, 한식·패션·뷰티까지 관심을 확장시켜 국가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6 **한성 주장:** K-POP 중심의 한류는 다른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가려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약화시킨다.

**근거:**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POP이 가장 큰 주목을 받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문학·예술·한식 등 다양한 문화 요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 = K-POP이라는 단순화된 인식이 형성되며, 이는 한국 문화의 폭넓은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대 주장:** K-POP 중심의 한류는 오히려 다른 한국 문화로의 관심을 확장시키며 다양성을 넓힌다.

**근거:** 세계인이 K-POP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드라마, 영화, 한식,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BTS 팬들이 한국어 학습이나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사례처럼, K-POP은 한국 문화의 관문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대왕(본책 142-143쪽)



1 ①-○, ②-○, ③-○, ④-○

2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당시 한자는 어렵고 양반만 사용해 지식이 독점되었기에, 세종은 문맹을 줄이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이는 지식 평등과 문화 자립을 위한 혁신적 시도였다.

3 최만리 등 일부 학자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이유로 사대주의적 관점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중국과 다른 독자적 문자를 만드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끄럽다고 보았고, 이미 한자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자



가 혼란을 초래하며 학문적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왕권: 서양에서는 15세기 이후 왕권이 교황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농서: 그는 농서를 사서 새로운 경작법을 연구하는 근면한 농민이다.

•태평성대: 전하의 은화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5** 훈민정음은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담아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체계적 설계로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백성을 위한 창제 정신은 평등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 한국 문화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6 찬성 주장:** 한글 창제는 기존의 한자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었기에 세종대왕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

**근거:** 당시 사회는 한자를 기반으로 학문과 행정이 운영되었고, 지배층은 문자 독점을 통해 권위를 유지했다. 새로운 문자의 도입은 기존 질서를 위협해 양반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으며,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대주의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반대 주장:** 한글 창제는 백성을 위한 혁신적 결정으로, 사회 질서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근거:**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이 글을 쓰고 읽는 데 큰 제약이 있었고, 이는 지식의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과 학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평등을 확대했다. 이는 단기적 혼란보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과 문화 자립을 이끄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 해전 불패의 신화, 충무공 이순신(본책 146~148쪽)



**1** ①-○, ②-○, ③-○, ④-○

**2** 백의종군은 벼슬이나 관직을 내려놓고 평민의 신분으로 군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순신 장군은 모함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옥에 갇히고 관직을 잃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그는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며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이후 다시 지휘권을 회복해 큰 승리를 이끌었다.

**3** 명량 해전 승리의 전략적 요인은 지형 활용과 심리전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좁고 거센 물살을 이용해 일본군 대규모 함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했다. 또한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강한 의지와 사기를 불어넣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고, 적의 방심을 역이용해 기습적 전술을 펼쳤다. 이러한 지형·심리·전술의 결합이 극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4** ①-㉔, ②-㉒, ③-㉓, ④-㉑

**5**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재건할 때 강한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백성과 부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안목으로 조직을 다시 세우고 사기를 높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구성원과의 신뢰,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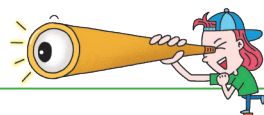
**6 찬성 주장:**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라기보다 정치적 모함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다.

근거: 이순신은 뛰어난 전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모함과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옥에 갇히고 백의종군을 해야 했다. 그의 능력과 헌신은 시대적 불신과 권력 구조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결국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점은 영웅적 찬사보다는 시대의 희생자로서의 측면을 보여준다.

반대 주장: 이순신 장군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며 나라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다.

근거: 수많은 정치적 압박과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조선을 지켜냈다. 명량·한산도 등 전투에서 보여준 전략과 리더십은 백성과 나라를 위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분투하였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영웅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 조선 구국의 영웅, 도마 안중근(본책 150~151쪽)



**1** ③ | 안중근은 재판 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는 그가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토는 을사늑약을 주도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국권을 침탈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억압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안중근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정의로운 응징이라 판단해 하얼빈에서 저격을 실행했다.

**3**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한국·중국·일본이 협력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고 동양의 자주적 평화를 이루자는 사상이다. 그는 세 나라가 공동으로 군사·경제·교육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독립을 보장하고 동양 전체의 번영을 실현하려 했다. 이는 민족 해방과 국제적 평화의식을 결합한 선구적 구상이었다.

**4** •총명: 이 소년의 총명과 예지는 못사람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탄압: 일제는 독립지사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원흉: 당국은 계곡에서 취사하는 것이 하천 오염의 원흉이라고 판단하였다.

**5**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민족 독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 침략의 핵심 인물을 처단함으로써 억압받던 민족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이는 정의와 자유를 향한 희생적 행동으로, 오늘날에도 독립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6 찬성 주장:**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에도 국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상이다.

근거: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중근이 주장한 한국·중국·일본의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경제·문화·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는 국제기구와 다자 협력 체제와도 맞닿아 있어 여전히 실현 가능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반대 주장: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 복잡한 국제 정치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 사상이다.

근거: 현대 동북아는 역사적 갈등, 영토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한국·중국·일본



은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안보와 외교에서는 경쟁과 불신이 깊어, 안중근이 구상한 공동 군사·경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양평화론은 이상적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 독립, 백범 김구 (본책 154-155쪽)

1 ①-○, ②-○, ③-○

2 김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지만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립이 외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고, 조국이 분단된 채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자주 독립과 통일된 국가를 원했으나 미·소의 영향으로 남북이 갈라지며 민족의 염원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김구는 반쪽짜리 독립에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느낀 것이다.

3 김구는 남북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하며 이념을 초월한 협력을 강조했고, 1948년 남북협상에 직접 참여해 김일성과 회담을 진행했다. 또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루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민족 내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4 김구 선생은 신탁 통치를 민족 자주 독립을 가로막는 외세의 간섭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는 이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된 상황에서 다시 신탁 통치를 받는 것은 독립을 미루고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결집시켰다.

5 『백범일지』는 김구의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그리고 민족 자주와 통일을 향한 사상을 담고 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와 정의를 우선하는 자세,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6 찬성 주장: 김구가 살아 있었다면 강력한 통일 의지와 민족적 지도력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거: 김구는 남북협상에 직접 참여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지도자였다. 그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통일을 강조했으며, 국민적 신망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민족을 결집시킬 힘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존재와 지도력이 지속되었다면 분단을 막고 통일의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다.

반대 주장: 김구가 살아 있었다 해도 국제 정세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거: 당시 한반도는 미·소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놓여 있었고, 두 강대국은 각자의 체제를 확산시키려 했다. 김구의 통일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지도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분단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항거, 4·19 혁명(본책 158-159쪽)



- 1 ①-○, ②-×(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진 불공정한 선거였다. ③-○, ④-○)
- 2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연장과 재선을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1952년 발체개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 지지 세력이 약한 국회 대신 국민투표로 재선을 노린 것이었고, 1954년 사사오입개헌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 3 4·19 혁명의 원인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고, 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 혁명으로 이어졌다.
- 4 •독재: 시장의 독재는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야: 대통령은 하야 직후 망명길에 올랐다.  
•시위: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 5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사건은 국민 주권 의식을 강화했고, 이후 장면 내각이 출범하며 민주적 제도가 재정비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의 수호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 6 **찬성 주장:** 4·19 혁명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 의식을 강화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근거:**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해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확인시켰다.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장면 내각의 출범은 민주적 제도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반대 주장:** 4·19 혁명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기보다 일시적 성과에 그쳐 장기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근거:** 혁명 직후 민주적 제도가 잠시 회복되었지만,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곧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며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했다. 국민의 주권 의식은 강화되었으나 제도적 안정과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에, 4·19 혁명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국민의 힘으로 되찾은 주권, 5·18 광주 민주화 운동(본책 162-163쪽)

- 1 ①-○, ②-○, ③-○
-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군사독재와 계엄령 확대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저항했으나,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으로, 국민 주권과 인권 수호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 3 광주 시민들이 무장해 시민군을 조직한 이유는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



다. 평화적 시위가 폭력으로 억눌리자 시민들은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저항했다.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절박한 선택이었으며, 공동체를 지키려는 자발적 행동이었다.

4 ①-㉠, ②-㉡, ③-㉢, ④-㉣

5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진실은 은폐되었으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재조명되며 국가 폭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광주의 저항은 이후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되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국민 주권과 인권 수호의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6 찬성 주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사건이므로 의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근거: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인권 존중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왜곡과 망각을 방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 주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정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어 의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거: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해석과 평가에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이 존재한다. 의무 교육 과정에서 다루게 되면 특정 시각이 강제될 위험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이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택적·심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다시 한 번 지켜낸 민주주의, 6월 민주 항쟁(본책 166-167쪽)



1 ①-○, ②-×(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헌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유로 기존의 헌법대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겠다는 호헌 선언을 했다.), ③-○

2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와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정치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체제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서며 항쟁이 일어났다.

3 호헌 선언은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간선제를 유지하려 했다. 이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월 민주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4 •규명: 주민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개정: 그 의원은 악법의 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타도: 독재자 타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5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당시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발표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인권 신장,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약속되었다. 이는 6월 민주 항쟁의 성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6 찬성 주장:**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운동이다.

**근거:**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대규모 참여로 군사독재를 압박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확보한 역사적 성과로,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를 확립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적 완성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 주장:**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였지만, 완성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불과했다.

**근거:** 항쟁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남아 있었다. 이후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과 시민운동이 이어져야 했으며,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6월 민주항쟁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어둠에 지지 않는 꽃, 안네 프랑크(본책 170-171쪽)



**1** ①-○, ②-×('안네의 일기'는 안네가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은신처의 생활만 담고 있다.), ③-○

**2** 안네 프랑크가 살았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녀는 1929년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이주했지만, 1940년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되면서 은신 생활을 시작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은신처에서 일기를 쓰며 자유와 생존을 갈망했으나, 결국 발각되어 강제수용소에서 생을 마쳤다.

**3** '안네의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 숨어 지내던 안네 프랑크가 기록한 생활과 내면의 이야기다. 은신처에서의 두려움, 희망, 가족과의 갈등, 성장 과정, 자유에 대한 갈망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이 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일깨우며,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전하는 증언으로 남아 있다.

**4** 안네가 일기를 쓴 이유는 은신 생활 속에서 느낀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에게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이자 희망의 창이었다. 일기를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아내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

**5** '안네의 일기'가 오늘날에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목소리가 시대를 넘어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어린 소녀의 솔직한 기록은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6 찬성 주장:** 안네의 일기는 개인적 기록을 넘어 전쟁과 인권의 보편적 교훈을 인류에게 전한다.

**근거:** 안네의 일기는 한 소녀의 은신 생활을 담은 개인적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평화,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다. 전쟁의 참혹함과 차별의 부당함을 생생히 보여주며,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공유해야 할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반대 주장:** 안네의 일기는 감동적인 개인 기록일 뿐, 인류 전체의 보편적 교훈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근거:** 안네의 일기는 특정 시대와 상황, 즉 나치의 유대인 박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쓰인 개인적 경험이다. 그 감정과 시각은 보편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이를 인류 전체의 교훈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다, 헬렌 켈러(본책 174~175쪽)



- 1 ①-○, ②-×(어린 시절 헬렌 켈러는 인내력도 자제력도 없이 제멋대로 구는 아이였으나 가정교사 앤 설리번 선생님의 지도로 차츰 철이 들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③-○
- 2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 앤 설리번 선생님은, 인내력도 자제력도 없이 제멋대로 굴던 일곱 살 헬렌 켈러에게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다. 또한 헬렌 켈러는 여덟 살에 학교에 입학하여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목의 진동과 입의 모양을 만지고 느끼게 하는 학습을 통해 차츰 언어 능력을 회복하였다. 이렇듯 학교 선생님들과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3 헬렌 켈러는 1903년, 장애를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삶 이야기(The story of my life)』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였고, 다음 해 래드클리프 대학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애인 교육 시설과 교육 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으며, 장애인, 아동 인권, 여성 참정권, 노동 운동 등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썼다.
- 4 ①-㉠, ②-㉡, ③-㉢, ④-㉣
- 5 ①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다가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 6 **찬성 주장:** 헬렌 켈러의 사회운동 참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인권 신장 활동이었다.  
**근거:** 헬렌 켈러는 여성 참정권,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그녀의 발언과 행동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기보다,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참여는 인권 운동의 본질적 가치에 기여한 긍정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반대 주장:** 헬렌 켈러의 사회운동 참여는 인권 신장이라는 이상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띤 행보였다.  
**근거:**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당시 체제와 권력 구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이념과 사회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그녀의 사회운동은 인권 신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행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원자력 발전소, 필요할까? (본책 180-181쪽)



- 1 ①-○, ②-○, ③-×(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다.)
- 2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발전 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 가능성이 지적하며,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환경·인체에 장기적 위험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건설·해체 비용이 막대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된다.
- 4 **·신재생에너지:** 정부는 민간 협동으로 40조를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방사능: 자연 상태에서도 미량의 방사능이 외부에 방출된다.  
 ·탈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흐름 속에서 그린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5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명·환경에 치명적 피해를 남기며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최신 안전기술 도입, 다중 방호 설계, 엄격한 규제와 국제 협력, 투명한 정보 공개,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6 **찬성 주장:**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용을 주장하던 나라들은 재생 에너지의 현실적 한계를 느끼며 다시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에 비해 공급이 안정적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므로 원자력 발전소는 꼭 필요하다.  
**반대 주장:** 기후 위기의 시대, 원자력 에너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이다.  
**근거:** 지구 온난화로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구소련이나 일본의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유지, 관리 비용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원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가 있는 만큼 원자력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 한국, 핵무기 보유해야 할까? (본책 184-185쪽)



- 1 ①-×(핵 보유 찬성론자들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더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방과 정치적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③-○
- 2 핵우산이란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의존하는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로, 현재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이 되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공약하였다.

**3** 핵 보유 찬성 측 입장에 따르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더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4**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EU 등 주요국의 경제 제재, 국제 금융·무역 제한, 외교적 고립이 뒤따를 수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로 투자·기술 협력 중단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5**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 논의를 촉발하며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다. 일부에서는 핵 억지력 확보를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유지하며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강화, 한미동맹 협력,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6 찬성 주장:**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

**근거:** 현재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수시로 도발을 하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의 핵우산이 되어줄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

**반대 주장:** 한국의 핵 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근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 역시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여 국제 사회에서 신용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유전자 조작 기술, 허용해도 될까?(본책 188-189쪽)

**1** ③ |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알레르기과 면역 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생물의 유전 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조작하여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생물의 특성이나 기능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3** 유전자 조작 기술은 농업·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큰 장점과 동시에 논란을 안고 있다.

장점으로는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영양 성분 강화, 해충·병해에 대한 저항성 확보, 농약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 부담 완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유전 질환 치료 가능성 등이 있다. 이는 기아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위험,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교란 가능성, 그리고 인간·동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다. 또한 윤리적 문제와 기술 오용 가능성, 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도 제기된다. 결국 유전자 조작은 인류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안전성과 윤리적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4** 농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사례는 Bt 옥수수이다. 이 작물은 해충에 저항성을 갖도록 특정 박테리아 유전자를 삽입해 개발되었다. 장점은 해충 피해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약 사용을 감소시켜 환경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충의 내성 발생 가능성, 생태계 균형 교란, 인체 안전성 논란 등 우려도 존재한다.

**5**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은 난치병 치료와 유전 질환 예방, 맞춤형 치료 가능성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 입장은 인간 생명의 본질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안전성 검증 부족과 기술 오용 가능성, 불평등 심화 위험을 지적한다. 결국 의료적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이다.

**6 찬성 주장:** 유전자 조작 기술은 기후 위기와 식량난에 큰 도움이 된다.

**근거:**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심각한 기후 위기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지금, 기후 변화에 강하면서 영양가가 높은 농작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맞춤형 농작물을 개발하게 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농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만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대 주장:** 유전자 조작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근거:**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기술이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기술이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경우,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인간과 동물, 환경을 위협하며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디지털 디톡스(본책 192-193쪽)



- ①-○, ②-○, ③-x(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이는 행위이다.), ④-○
-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청소년일수록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력과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 또한 고개를 숙이고 작은 휴대폰에 몰두하다보면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 두통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스마트폰 세상에 갇혀 살면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디지털 디톡스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 디지털 디톡스 앱을 사용해 일부 앱을 차단하거나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주어지는 앱을 설치해 꾸준히 실행한다.
-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줄여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늘려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상대방과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가능해 신뢰와 친밀감이 강화된다. 반면 디지털 연결이 줄어



들어 일부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

**6 찬성 주장:** 스마트폰은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된다.

**근거:**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긴급 상황 시 연락 수단이 필요하므로 교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락해야 한다.

**반대 주장:**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근거:** 학생들에게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한다면,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검색창에 간단히 검색어만 입력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비롯해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할 경우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수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인공지능의 발전, 위기일까 기회일까?(본책 196-197쪽)



1 ①-○, ②-○, ③-○,

2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컴퓨터나 기계에 구현한 기술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음성 인식·이미지 분석·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수행하는 과학 기술이다.

3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된다.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비서, 온라인 쇼핑의 맞춤형 추천,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 자율주행 자동차, 병원의 영상 판독 보조, 번역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4 **·알파고:** 알파고는 바둑 경기에서 인간 최고수를 이기며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출:** 그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환한 미소로 감정을 표출했다.

**·악용:** 개인의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5 인공지능 발전의 장점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윤리적 문제와 오작동 위험 등 사회적 불안 요소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6 찬성 주장:**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된다.

**근거:**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업무 처리의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 주장:**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근거:**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윤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인정해야 할까?(본책 200-201쪽)



1 ①-○, ②-○, ③-○

2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은 AI가 만든 글·그림·음악 등 창작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논란의 이유는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점에서 저작권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창작자·개발자·사용자 중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3 현재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국가는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에서는 저작권 소송이 급증해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 현행법상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자·개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①-㉠, ②-㉡, ③-㉢, ④-㉣

5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인간의 창의적 개입과 의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순히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기획·지시·편집 등 창작 과정에서 독창적 선택을 했을 때 저작권이 성립한다. 또한 작품이 창작성과 표현성을 갖추어야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6 **찬성 주장:**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창작과 저작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근거:** 오늘날 인공지능의 창작 능력은 인간의 수준을 단순히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가치를 인정받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생성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시대에 따라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창작과 저작권의 영역을 인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반대 주장:**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거:**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고유한 창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는 달리, 독창성을 비롯한 인간의 창작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감성이 결여된 학습화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 전자책과 종이책,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본책 204-205쪽)



1 ①-○, ②-x(종이책 값은 오르고 있고, 독서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③-○, ④-○

2 e-Book(전자책)이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로 기존의 책이 종으로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되는 책이다.

3 전자책은 디지털 기기로 읽을 수 있어 휴대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많은 책을 한 기기에 저장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글자 크기 조절, 음성 지원 등 편의 기능이 제공된다. 그러나 눈의 피로, 배터리 의존, 소유감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종이책은 촉감과 소유의 만족감을 주



고 집중력 향상에 유리하며 전자기기 없이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무겁고 휴대가 불편하며 보관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전자책은 효율성과 편리함, 종이책은 감성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4** 전자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성과 접근성,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반면 종이책을 고르는 이유는 집중력과 몰입감, 소유의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준 요소는 생활 패턴, 독서 환경, 감성적 선호와 기술 활용 습관이다.

**5** 전자책은 출판 산업에 생산·유통 비용 절감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져왔다. 독서 문화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편리함으로 독서 인구를 늘렸지만, 종이책 판매 감소와 독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독서 경험이 약화되는 영향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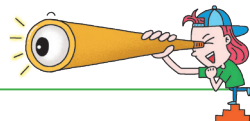
**6 찬성 주장:**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책을 읽어야 독서율이 높아진다.

**근거:** 전자책의 가장 큰 강점은 휴대성이다. 종이책 수백 권을 디지털 기기 하나에 담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전자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 중 1/3만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본다면, 우리나라 독서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독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주장:** 종이책을 직접 손에 쥐고 독서를 하는 습관이 독서율을 높인다.

**근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점의 풍경, 책 향기, 책장을 넘길 때의 감촉 같은 종이책을 기반으로 한 감성들을 즐긴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인터넷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이책을 직접 고르고 손에 쥐고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독서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어 독서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할까?(본책 208-209쪽)



- 1** ①-○, ②-×(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로 또 다른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③-○
- 2**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 3**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발생하는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대 효과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and 사이버 범죄 예방이었으나,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규제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났다.
- 4** •익명성: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책임 회피의 문제도 낳는다.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악플: 연예인 기사에 달린 악플은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 5**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2007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당시 악성 댓글은 줄었지만, 익명성이 사라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었다. 또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





건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되었다.

**6 찬성 주장:**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근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라는 가면이자 방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진다. 책임감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므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대 주장:**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근거:** 인터넷은 익명성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으며, 소수자들은 더욱 움츠러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의 익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 동물 실험, 허용해도 될까?(본책 214~215쪽)



**1** ①-○, ②-○

**2** 동물 실험은 의학이나 과학 연구를 위해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새로운 의약품과 치료법의 개발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3**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생활용품을 선택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대체시험법 개발 지원, 법적 규제 강화, 기업의 책임 있는 연구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4** ①-㉠, ②-㉡, ③-㉢, ④-㉣

**5** 동물 실험의 윤리적 논란은 생명 존중과 고통 최소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세포 배양,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공 장기 등 대체시험법 개발과 법적 규제 강화, 윤리적 연구 문화 확산이 제시된다.

**6 찬성 주장:** 현재 동물 실험은 동물 복지와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근거:** 동물 실험을 통해 의료, 과학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동물은 인체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현재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실험이다. 동물 실험에 대한 비윤리성과 관련해 논란이 증가하면서 최근 동물 실험에서 동물의 복지와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 실험이 실시될 것이다.

**반대 주장:** 동물 실험은 동물권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근거:** 최근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권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동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동물 실험에서 동물 복지를 준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의 경우일 뿐이며, 대부분의 동물들은 실험 과정에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결국에는 죽게 된다.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개발된 만큼 대체 실험을 더욱 발전시켜 동물 실험을 폐지해야 한다.



## 기후 위기, 이대로 괜찮을까? (본책 218-219쪽)



- ①-○, ②-○, ③-x(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기온이 높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④-○
-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표 부근 평균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가 대기에 머물며 열을 가두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폭염·가뭄·홍수·빙하 감소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 두고 냉난방 시설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한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 보호에 힘써야 한다.
- 빙하: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며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해수면: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의 침수 위험을 높여 인류의 생활 터전을 위협한다.  
•기후난민: 기후난민은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 기후난민은 기후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요 환경 요인으로서는 해수면 상승, 빈번한 홍수와 가뭄, 폭염, 산불, 빙하 감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해가 생존 기반을 무너뜨려 이주를 강요한다.
- 찬성 주장:**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야 한다.

**근거:** 기후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대 주장:**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

**근거:** 화석 에너지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기는 하지만, 화석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화석 에너지를 태양력,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공급이 불안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넘어 가치 있는 상품과 문화로 (본책 222-223쪽)

- ①-○, ②-x(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리사이클링(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 혹은 그렇게 만든 상품을 말한다.), ③-○, ④-○
- 업사이클링은 우리말로 새활용이라 부르며,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 혹은 그렇게 만든 상품을 말한다.
- 재활용 의류를 이용해 만든 옷이나 가방, 버려진 현수막, 튜브, 트럭 덮개, 우산 등을 이용해 만든 장바구니, 카드 지갑 등 패션 잡화가 있다. 또한 폐공장이나 창고, 컨테이너를 활용해 그대로 멋을 살린 카페나 소품숍 등이 있다.



- 4** ·친환경: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활성화: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향적: 현대 사회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지향적 가치관을 요구한다.
- 5** 재활용은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제품을 가공해 다시 원료로 만드는 것이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친환경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 6 찬성 주장:** 업사이클링은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근거:** 업사이클링은 버려질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게 해준다. 이는 쓰레기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며, 순환경제를 촉진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대 주장:** 업사이클링은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거:** 업사이클링은 소규모·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 폐기물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업사이클링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추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오히려 환경 부담을 늘릴 수 있으며, 대중적 확산이 부족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할까? (본책 226~227쪽)



- 1** ① | 2025년 기준, 최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 2**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 접객업에서 각종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에서 취식을 할 경우 종이나 플라스틱 컵과 그릇, 수저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 3** 일회용품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탄소 배출 절감에도 기여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소비자 편의성과 위생 문제, 특히 음식 포장·배달 산업에서 규제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대체재 생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발생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4**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로는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소재, 다회용 컵·텀블러, 식물성 섬유 포장재 등이 있다. 또한 곡물·해조류 기반 포장재,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용기, 친환경 종이 빨대 같은 기술과 제품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촉진한다.
- 5** 기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개발과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포장 최소화, 다회용 용기 도입,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친환경 선택을 유도하는 캠페인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6 찬성 주장:**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근거:** 일회용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이다. 이 중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도 많으므로 일회용품 사



용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마저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일회용품을 습관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과 경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반대 주장:** 일회용품 사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근거:**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개인의 위생에 더욱 민감해져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회용품을 쓰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린벨트, 유지해야 할까?(본책 230-231쪽)



- 1 ①-○, ②-○, ③-×(그린벨트를 해제해야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 2 개발제한구역을 일컫는 말로, 국가에서 환경 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는 환경 보호법이다.
- 3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을 제한해 녹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기 정화·수질 개선·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에 도움을 분다.
- 4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되었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해 환경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했다.
- 5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친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정부는 환경 규제와 경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녹색 산업 육성과 자원 효율적 관리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6 **찬성 주장:**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크다.

**근거:**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이다.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더 크다. 지구 온난화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산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반대 주장:**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근거:**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산업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주택 공급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